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507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5년 8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영어 관사 용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수 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영어 관사 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glish Article Usages

2015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수 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영어 관사 용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남 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수 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수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 희 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정 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남 근 인

2015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 iv

제1장. 서론 ····· 1

제2장. 관사에 관한 연구 ····· 4

제1절. 관사의 분류 ····· 4

1. Jespersen의 분류 ····· 4

2. Quirk et al.의 분류 ····· 8

제2절. 관사의 용법 ····· 11

1. 부정관사 ····· 11

가. 통사적 접근 ····· 12

나. 의미적 접근 ····· 16

다. 화용적 접근 ····· 2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정관사 ····· 22

가. 통사적 접근 ····· 23

나. 의미적 접근 ····· 27

다. 화용적 접근 ····· 29

3. 무관사 ····· 32

가. 통사적 접근 ····· 32

나. 의미적 접근 ····· 38

다. 화용적 접근 ····· 40

제3장. 결론 ····· 42

참고문헌 ····· 4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부정관사의 발음 ····· 12
<표 2>Jespersen의 명사분류표 ····· 14
<표 3>명사의 가산성과 관사 ····· 15
<표 4>정관사를 사용하는 지명 ····· 25
<표 5>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지명 ····· 3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English Article Usages

Lee Soo-min
Advisor : Prof, Namgeun Lee. Ph D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English articles could be a huge challenge for foreigners learning English. First of all, English and Korean are quite different in their structures. There are no articles found in the Korean language. Therefore, there is an insufficient amount of researches studying the English articles in Korea. The fact that Korean grammar uses demonstrative adjectives and quantifiers as a direct substitute to the articles in English arouses more confusion among Koreans.

Therefore, this paper is to recognize the common mistakes English learners make while using English articles and to provide helpful tips for those who teach the English articles on the site.

In the beginning, the necessity of educating the English articles is mentioned after showing that many English learners make errors regarding the articles. This paper will categorize the type of articles in thre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ifferent ways, a definitive article, the, an indefinitive one, a and an. There is also a zero form article. The main body of the paper will discuss how Jespersen and Qurik et al. categorized the articles. Then, the paper will also cover the usage of the articles by studying the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approaches.

There are three clear points to determine the usage of the articles. First, one has to determine if the nouns being used are countable. The syntactic approach is used if one knows the type of a noun used. Secondly, a noun including an article could be referred to a certain sentence or a circumstance. In this case, one can apply a pragmatic approach. If a noun refers to a certain meaning, one uses definitive article and if not, indefinitive article should be used. Lastly, a generic method is used when the articles represent the whole group.

There are many exceptions using the articles and it is difficult to address a clear usage of it. This paper will conclude with the observation of different usages of the articles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the articles are used to help readers to understand the grammatical challenges one faces while using the articles.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 서 론

한정사란 낱말 앞에 부가됨으로써 명사를 한정하거나 특정화시켜주는 것이다(문용 1998). 한정사의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몇몇 전통적인 문법 학자들은 한정사를 형용사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능적, 위치적 특성 이외에 문법적으로 살펴본다면 한정사는 형용사와 분명 다르다. 한정사는 형용사처럼 비교급과 함께 쓰일 수도 없고 술어적인 기능으로 쓰일 수도 없다(김창호 1994). 다음은 Cowan(2008)이 제시한 10가지 종류의 한정사들이다.

(1) a. Articles-a/an, the
b. Demonstrative determiners-this/that, these/those
c. Possessive determiners-my, his/her, our, your, its, their
d. Nouns as possessive determiners-John's, Bill's
e. Quantifiers-all, any, few, many
f. Partitives-glass of, loaf of, bit of, acre of
g. Cardinal numbers- one, two, three
h. Ordinal numbers-first, second, next, last
I. Multipliers-double, twice, three times
j. Fractions-Three-fourths, two-fifths

(Cowan 2008: 187)

이처럼 한정사의 종류에는 관사, 대명사의 소유격, 지시형용사, 수량표현의 한정사 등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영어 관사에 대해서만 연구할 것이다. 영어의 관사란 주로 부정관사 *a*와 *an*, 정관사 *the*를 지칭하는데 영어를 학습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다른 영문법의 영역은 중요시하는 반면 영어 관사에 대한 교육에는 소홀한 편이다. 관사는 주로 대표적인 몇 가지의 용법을 배우는 데에만 치중되고 다른 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러 상황에서 쓰이는 많은 기타적인 용법들에 대해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어텍스트에서 관사가 쓰이는 높은 빈도를 본다면 관사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외국어로써 영어를 오래 공부한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절한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관사교육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영어문장을 독해할 때 어떤 영어 관사가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문장에 대한 번역이 완전히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2)의 예문을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겠다.

(2) My father bought me a computer but I don't like the computer.

위의 예문에서 *the computer*은 어떤 컴퓨터를 지칭하는 것일까? 정관사 *the*가 쓰였기 때문에 문장의 주인공이 컴퓨터라는 기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앞에서 언급된 아버지가 사주신 특정 컴퓨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어 독해를 할 때 관사가 의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잘못된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관사가 우리나라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어의 구조와 영어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어에는 영어의 관사에 대응하는 구조가 없다. Marianne & Diane(1999)에 의하면 교차 언어적(cross-linguistic)관점에서 볼 때 관사 사용의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한다. 많은 슬라브 언어, 아시아 언어 그리고 아프리카 언어는 관사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관사나 관사와 비슷한 형태소를 가진 프랑스어, 스페인어, 페르시아어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어 또한 영어의 관사와는 다른 용법으로 관사가 사용된다. 그러므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에게 관사 사용은 영어에 대한 직관력까지 요구된다. 두 번째 이유는 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명사의 가산성과 한정성에 대한 연구도 함께 병행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영어교육에서 이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어법에서는 관사가 지시대명사나 수사의 개념으로 대치되어 그 혼란이 가중된다.

Jespersen(1965)은 관사 사용의 복잡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use of the article presents a great many intricate problems, and it is impossible to give a small number of settled rules available for all cases; idiomatic usage very often runs counter to logic or fixed rules." (Jespersen 1965:404)

Jespersen(1965)의 말처럼 관사는 복잡하고 까다로워 몇 가지 규칙만으로는 그 용법을 정의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관사의 중요성을 미루어 보아 관사 용법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는 꼭 필요하므로 관사 용법의 일반적인 규칙을 찾고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학습자들의 관사 오류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영어 관사의 용법을 분석하여 영어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인 관사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 1장 서론에서는 한국인들의 관사 사용 오류 실태와 그 이유를 이해하며 관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이어서 제 2장에서는 대표적인 문법 학자 Jespersen과 Quirk et al.이 분류한 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그동안 관사의 용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관사의 용법을 나열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닌 부정관사, 정관사 그리고 무관사의 용법을 각각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접근을 통해 정리하여 관사 용법에 대한 더 빠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관사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올바른 관사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마무리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장. 관사에 관한 연구

제1절. 관사의 분류

1. Jespersen(1949)의 분류

Jespersen은 Christophersen의 친숙론의 영향을 받아 보다 더 발전된 친숙론을 제시하였다. 그가 1933년 제시한 이론에서는 정관사의 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정해진 규칙에 따르는 경우이고 둘째는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Jespersen(1949)이 제시한 정해진 규칙은 강, 바다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에서 정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설행남 2003).

(3) a. the North Sea, the Thames.
b. Can you play the piano?

(Eastwood 2005: 201)

설행남(2003)이 말하는 Jespersen의 두 번째 용법은 '*the*+명사'가 발화하는 순간 화자와 청자의 마음속에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이다. 이전에 언급된 것을 지칭하거나 주어진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화자와 청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로써 정관사에 대한 화용적 접근이 가능하다. Jespersen(1949)은 세 개의 단계로 관사 용법을 분류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친숙의 3단계는 완벽한 비 친숙 단계(complete unfamiliarity), 거의 완벽한 친숙 단계(nearly complete familiarity) 그리고 완벽히 친숙한 단계(complete familiarity)로 나뉜다.

각 단계는 화자와 청자가 그들의 대화 속에서 명사를 친숙하게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Jespersen(1949)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행남(2003)이 정리한 분류를 통해 Jespersen의 친숙의 3단계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단계인 완벽한 비 친숙의 단계는 '완전히 생소한 단계'라고도 불린다. 즉 정해지지 않은 상태, 확정되지 않은 명사의 경우에 부정관사인 *a, an*을 사용하거나 무관사와 함께 복수형을 취한다. 그리고 복수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김기완 2003).

(4) a. This is a desk

b. That is an orange.

c. They like to eat oranges in the winter.

d. Some people drink coffee after meals.

(김기완 2003: 15)

(4a)의 *desk*, (4b)의 *orange*, (4c)의 *oranges* 그리고 (4d)의 *coffee*는 확정되지 않은 사물들이다. 그러므로 정관사가 아닌 부정관사나 무관사가 사용되는 것이 맞다. 이때 가산명사 앞에서는 부정관사를, 불가산 명사나 복수형의 가산명사 앞에서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설행남(2003)에 따르면 친숙론의 2단계는 정관사 '*the*+명사'가 사용되는 단계이다. 이 때 친숙성은 각각의 문맥이나 전체 상황 속에서 결정 된다. Jespersen은 정관사 *the*가 명사가 사용되기 전, 이미 화자의 의식 속에 명사에 대한 정보나 직감이 형성되어 있고 이를 어느 정도 친숙하게 느낄 때 사용된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제시될 5가지의 예문들은 거의 완벽한 친숙 단계에서 '*the*+명사'가 사용되는 경우이다.

(5)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n old tailor in a small village.

The tailor was known all over the village as "Old Harry".

(강행구 2001: 4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의 예는 처음 언급한 *an old tailor*를 다음 문장에서 다시 언급하여 정관사 *the*를 사용하는 경우로 '대용어적 용법'이라고도 말한다.

(6) We arrived at Hermance, a beautiful little village, containing a ruined tower, built, the villagers say, by Julius Caesar.

(설행남 2003: 22)

두 번째 용법은 '*the*+명사'의 형태를 사용하려는 명사와 연관된 어떤 다른 대상물을 먼저 언급하고 그 이후에 그 대상물과 관련된 다른 명사들을 언급할 때 정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설행남 2003). (6)의 예문에서 *the villager*는 앞서 나온 *a beautiful little village*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문맥에 비추어 앞서나온 아름답고 작은 마을에서 사는 마을사람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7)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설행남 2003: 22)

세 번째 용법은 '*the*+명사'가 유일한 것을 나타낼 때이다. Jespersen은 '*the*+명사'가 어느 단어의 경우에서든지 유일함을 표현하며 세상에 하나뿐인 대상을 지칭한다고 말한다. (7)의 예문에서 *the Heaven*과 *the Earth*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다.

(8) He is so much the gentleman, that it is impossible to be more so.

(설행남 2003: 23)

설행남(2003)이 제시하는 네 번째 용법은 전형적, 특징적 또는 특별하게 우수한 표본(the typical or characteristic or particularly excellent specimen)에 정관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사용하는 경우이다(Jespersen 1949). (8)의 예문의 *the gentleman*은 신사로서의 품위를 뜻하며 신사의 전형적인 한 형태를 표현한다.

(9) The policeman is a permanent public defiance of Nature.

(설행남 2003: 23)

마지막 용법은 총칭적 용법이다. 이 때 명사는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한 가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류나 종족을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9)의 예문의 *the policeman* 또한 특정한 대상이 아닌 경찰 전체를 총칭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Jespersen의 세 번째 단계인 완벽히 친숙한 단계는 주어진 명사가 화자와 청자에게 완벽히 친숙하여 어떠한 관사도 명사 앞에 붙을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된 명사 그 자체가 *the*보다 더 강한 친숙성을 나타내므로 *the*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강행구 2001). 다음의 예들은 화자와 청자에게 서로 완벽히 친숙하여 관사가 쓰이지 않는 경우이다.

(10) a. Father, mother
b. Come on!, Gentleman.
c. By this time dinner was ready.
d. School is over.
e. Go to town/ live in town.
f. Sunday is for church.
g. Smith, Victoria.

(설행남 2003: 24)

(10a)는 가족 관계의 호칭에서, (10b)는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격의 경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c)는 식사 이름 앞에서, (10d)는 명사가 본래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관사를 쓰지 않는다. 이어서 (10e)는 '마을'의 의미인 *town* 앞에서, (10f)는 특정 기간이나 요일의 경우, 마지막으로 (10g)는 개인의 이름 앞에서 관사가 쓰이지 않는다.

2. Quirk et al.(1985)의 분류

Jespersen(1949)의 친숙설은 의미상의 분류로 관사를 분류하지만 Quirk et al.(1985)은 이를 넘어서 화용적 기능까지 고려하여 관사를 분류한다. 그의 분류는 현대 영어에서도 관사의 분류에 있어 가장 명확한 분류 기준으로 평가된다. Quirk et al.(1985)은 관사를 정관사, 부정관사, 무관사로 분류했으며 각 구분의 예문을 제시하며 분류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a. These are the pistons.
b. The Pope, The Prime Minister
c. John bought a TV and a video recorder, but he returned the video.
d. John bought a bicycle, but when he rode it one of the wheels came off.
e. The President of Mexico is to visit China.
f. My sister goes to the theatre every month.
g. We must catch the next bus.
h. Mary banged herself on the forehead.

(Quirk et al. 1985: 266-271)

(11)의 예문들은 Quirk et al.(1985)이 분류한 정관사 사용의 분류와 그 예시이다. (11a)는 직접적인 상황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정관사 *the*를 사용하는 경우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눈앞에 있는 *the pistons*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경우이다. (11b)는 사람들이 아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전 세계에서 또는 한 국가에서 통용되는 지식이다. (11c)는 앞서 나온 구에서 나온 정보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로 *John*이 구매했던 특정한 *video recorder*를 반품하였기 때문에 뒤에 나온 *video*에 정관사가 붙는다. (11d)는 (11c)와는 조금 다르지만 앞서 나온 정보를 간접적으로 지시한 경우에도 정관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1e)는 뒤에 따라오는 정보를 한정하는 경우로 *The President*는 뒤에 따라 나온 *Mexico*의 대통령을 의미한다. (11f)는 특정 집단이 지시하는 대상을 알고 있는 경우로 *the theatre*는 *My sister*이 자주 가는 극장으로 이미 화자가 알고 있는 극장의 경우이다. (11g)는 논리적 이해가 가능한 상황의 경우에 정관사를 첨가하는 경우인데 *the next bus*는 사람들이 방금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다음 버스를 타고자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1h)는 신체의 일부분을 언급하는 경우로 *Mary*의 *forehead*를 가리킬 때 정관사를 사용한다.

(12) a. My daughter is training as a radiologist.

b. The Wrights have two daughters and a son.

(Quirk et al. 1985: 273-274)

다음으로 (12)의 예문들은 부정관사가 사용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12a)는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radiologist*를 지칭하는 경우로 대상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경우이다. (12b)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써 '하나'의 의미로 쓰일 때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이며 *a son*은 '한명의 아들'을 의미한다.

(13) a. Do you like folk music?

b. John F. Kennedy w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1961.

c. They talked face to fac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 He went there in foot.

(Quirk et al. 1985: 274-280)

(13)의 예문들은 관사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 (13a)는 불가산 명사와 복수명사 앞에서 관사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13b)는 따로 언급이 없어도 명확한 역할을 가진 대상을 지칭할 경우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이다. *John F. Kennedy*는 어떤 *Kennedy*라는 설명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한다. (13c)는 평행구조에서 관사가 생략되는 경우로 전치사 *to*로 연결된 두 개의 *face* 앞에 관사가 사용되지 않는다. (13d)는 전치사가 포함된 특정한 구문이나 관용구에서 관사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관사의 용법

관사는 기본적으로 정관사 *the*와 부정관사 *a*와 *an*이 있다. 그 밖의 관사의 종류로 관사를 생략하는 경우를 무관사(zero article)로 정의하겠다. 세 가지 관사의 종류와 예는 (14)와 같다.

(14) a. 부정관사 : a boy, an apple
b. 정관사 : the boy, the apple
c. 무관사 : ∅ boys, ∅ apples

본 논문에서는 관사의 용법을 부정관사, 정관사 그리고 무관사의 용법으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각 용법들을 통사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으로 접근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1. 부정관사

Jespersen(1933)은 부정관사가 *one*의 축약형이라고 정의한다.

"An(before vowels), a(before consonants) is what is traditionally termed 'the indefinite article' ; a better name would be 'the article of indetermination.' It is historically a weakened form of one."

(Jespersen1933: 161)

부정관사는 자음 앞에서 *a*, 모음 앞에서 *an*를 붙인다. 부정관사 *a*는 *union*이나 *university* 와 같이 첫 발음이 /j/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쓰이고 *an*은 *heir, honest, honour(able)* 그리고 *hour*과 같이 첫 음이 소리 나지 않는 *h*로 시작하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우 그 앞에 나온다. 부정관사 *a*, *an*은 [ə], [ən]으로 각각 발음하지만 다른 낱말과 대조를 나타내려면 강세를 붙여 [ei],[æn]으로 각각 발음 한다(김용성 2001).

<표 1>부정관사의 발음

부정관사 a-/ə/	부정관사 an-/ən/
a shelf /ə/+/ʃ/	an accident /ən/+/æ/
a visitor /ə/+/v/	an exhibition /ən/+/e/
a big exhibition /ə/+/b/	an interesting display /ən/+/I/

(Eastwood 2005: 196)

가. 통사적 접근

부정관사의 용법은 정관사나 무관사에 비해 해당 명사의 수와 관련성이 밀접하여 통사적 접근의 필요성이 크다. 한학성(1996)에 따르면 국내의 영어 관사 교육 현장에서는 해당 명사의 수의 성질에 따른 부정관사 용법을 교육하는 것에 소홀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관사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핵심사항은 해당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닌지의 구분, 즉 명사의 가산성이라고 말한다. 본격적으로 명사의 가산성과 관사의 관계를 알아보기에 앞서 명사의 분류에 대해 먼저 파악하도록 한다. 안수정(2013)은 명사의 범위가 물리적인 실체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쉽게 그 특징을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의 분류기준 또한 일정하지 않고 명사의 분류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분류하는 데 필요한 적용기준과 의견이 다르다.

가장 먼저 Nesfield(1898)는 명사의 범주를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의 분류방식은 현재까지도 학교문법에서 사용되는 기준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5) a. Common Noun : She eats two apples a day.

b. Collective Noun : Dave had to support a large family.

c. Material Noun : Fire and water do not mix.

d. Proper Noun : Mozart is a great composer.

e. Abstract Noun : I loved her elegance and beauty.

(안수정 2013: 22)

또한 Nesfield는 어떤 종류의 명사가 사용되는지에 따른 수의 개념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통명사는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관사를 붙여서 추상명사화 할 수 있다. 물질명사는 단수와 복수를 구별할 수 없지만 관사가 붙거나 복수가 되면 보통명사화 할 수 있다(안수정 2013).

하지만 학교문법에서 분류하는 명사의 종류는 관사 사용의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명사의 특징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명사가 관사와 결합되었을 때의 명확한 쓰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혼돈이 크다.

송미영(1981)에 따르면 전통문법에서 Jespersen(1933)과 몇몇 전통문법 학자들이 명사의 분류기준을 수(number)의 개념으로 보고 명사를 수를 헤아릴 수 있는 가산 명사와 그렇지 못한 불가산명사로 분류한다고 한다. 그리고 '문법이란 어휘형태소들을 기반으로 하여 문법형태소들의 분포를 예측하는 일련의 규칙들의 모임'이라는 지배개념에 의거하여 각 범주의 명사들이 취할 수 있는 수식어들을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문법형태소들의 쓰임은 그 자체의 고유의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휘형태소들의 종류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문법형태소들은 함께 쓰이는 어휘형태소들의 종류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해지므로 결국 고유한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명사를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분류한 최초의 학자는 Jespersen(1933)이며 그가 분류한 명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 Jespersen의 명사분류표

명사	thing-word (countable noun)	material word	girls, horses, houses, flowers
		immaterial word	days, hours miles, words, sonatas, events, crimes, mistakes, ideas
	mass-word (uncountable noun)	material word	silver, quicksilver, water, butter, tea
		immaterial word	leisure, music, traffic, success, commonsense, knowledge

(Jespersen 1933: 206)

Jespersen(1933)은 명사를 물체어(thing-word)와 물량어(mass-word)로 나눈다. 물체어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어 단수와 복수형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가산명사(Countable noun)라 하고 물량어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항상 단수형태이며 불가산명사(Uncountable noun)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시 이 두 범주의 명사를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실체어와 그렇지 못한 비실체어로 각각 세분한다(송미영 1981). 가산명사가 취할 수 있는 수식어에는 대표적으로 부정관사가 있다. 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관사는 단수와 복수의 개념으로 셀 수 있는 물체 앞에 쓰인다는 점으로 보아 통사론적 접근에 의한 용법을 갖는다. 문용(1998)의 다음 <표 3>은 단수가산명사, 복수가산명사 그리고 불가산명사 앞에 부가하는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각각 사용되는 경우를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부가하여 쓰일 수 있는 경우는 (+), 쓰일 수 없는 경우는 (-)로 나타낸다.)

<표 3>명사의 가산성과 관사

	단수가산명사	복수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부정관사 a(n)	+	-	-
정관사 the	+	+/-	+

(문용 1998: 149)

관사의 사용에 있어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뿐만 아니라 불가산명사에 해당하는 추상명사와 물질명사, 그리고 고유명사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경자(2010)에 따르면 추상명사와 물질명사의 경우 부정관사나 복수형으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정관사는 사용 가능하다. 왜냐하면 추상명사와 물질명사는 개체(individual)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즉 한 개의 물 *a water*이나 두 개의 행복 *two happiness*와 같은 개념이 성립되지 못하고 한 덩어리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16) a. the water I drank yesterday

b. the happiness of my life

(김경자 2010: 5)

(16a)의 '어제 마신 물'이나 (16b)의 '내 인생의 행복'처럼 정관사를 사용하여 특정한 일부만을 지칭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유명사의 경우는 관사도 복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유명사의 해당명사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이름의 경우 여러 명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게 되므로 단수, 복수나 다른 지칭하는 말을 붙일 수 없다. 단 특정한 고유명사의 경우 반드시 정관사를 사용한다(김경자 2010).

조성식(1971)은 명사를 오로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해당 명사가 문장 안에 들어 문맥을 뒷받침해야 명사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문맥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명사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한다. 문맥에 따른 관사의 용법은 화용적 접근을 통한 정관사의 용법을 통해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 의미적 접근

부정관사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중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one*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이다.

(17) a. May I have an apple?
b. He didn't say a word
c.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문용 1998: 122)

(17a)의 *an apple*은 사과 하나를, (17b)의 *a word*는 말 한마디를, (17c)의 *a day*는 하루를 의미한다. 다음 (18)의 예문들은 부정관사가 *one*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는 잘 구분되어야 하는 경우로써 어떤 종류의 하나임을 나타낼 때 쓰인다.

(18) a. This is an apple, not a pear.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Paganini was a great violinist.

c. I want a newspaper, not a magazine.

(문용 1998: 122)

부정관사가 *one*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 어느 종류의 하나임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one*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정관사 *an*을 *one*으로 바꿀 수 있지만 어느 종류의 하나임을 나타낼 때는 부정관사 *an*을 *one*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17a)에서 *an apple*은 *one apple*로 쓰여도 그 의미가 '하나의 사과'로써 일치한다. 하지만 (18a)에서 *an apple*을 *one apple*로 바꾸어 쓴다면 그 의미는 더 이상 과일의 한 종류로써의 사과라는 뜻이 아니다. 이와 같은 불일치는 제시된 단수형을 복수형으로 바꾸어 나타낼 때에도 볼 수 있다. (17a)에서 *an apple*의 복수형으로는 *May I have apples?* 가 자연스럽지만 (18a)에서 *an apples*는 종류로써의 사과를 가리키므로 사과의 개수를 강조한 *These are some apples*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없다.

세 번째로는 배분적 의미(per)를 나타낼 때이다. (19a)의 *a day*는 '매일', '하루마다'를 의미하고 (19b)의 *a month*는 '매달'의 의미를 나타낸다.

(19) a.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b. He earns $2,500 a month.

(한학성 1996: 123)

이 때 부정관사는 'every'나 'each', 'per'의 의미를 나타낸다. 네 번째 의미론적 용법은 'the same'의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20) a.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b. They are all of a siz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용 1998: 124)

예문(20)에서처럼 부정관사가 'the same'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 그 사용빈도나 범위가 점점 줄고 있다. 다섯 번째로 특정한 수량사(quantifier)와 함께 쓰일 때 부정관사는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

(21) a few weeks, a little water, a great many, a good many, a bit, a dozen eggs, a score of people, a hundred books.

(문용 1998: 125)

예문 (21)에서 제시된 수량사들 앞에서는 주로 부정관사가 쓰이며 부정관사가 수량사와 결합하게 되면 특정구문을 형성하거나 구체적인 뜻을 지니게 된다(최승우 2002).

(22) a. It is a good place to find out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world right in your home.

b. So King led a quarter of a million people to Washington D.C.

(최승우 2002: 41)

(22a)에서는 *a lot of*는 'much'의 의미를 나타내고 (22b)에서 *a quarter*은 4분의 1이라는 단위로 쓰여 25만명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a(n)+ most+ 형용사+ 명사'의 구문에서 부정관사가 사용되면 '매우'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23) They came to a most unusual house made of gingerbread.

(백선주 1982: 2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또한 고유명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본래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부정관사가 고유명사나 고유명사에 가까운 관계가 있는 보통명사와 함께 쓰이면 국민, 가족의 일원을 나타내기도 한다(백선주 1982).

(24) a. When a japanese person uses this listening sound in a conversation in English with an American, the American may think the Japanese listener is saying, Okay! Okay! I understand! (최승우 2002: 45)

b. An Italian was once visiting Los Angeles. (백선주 1982: 26)

최승우(2002)에 따르면 (25)의 *A very strange man*처럼 부정관사가 사람의 이름과 함께 쓰여서 'a certain'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25) “A very strange man- a Mr, Nuttel,” said Mrs. Sappleton.
(최승우 2002: 45)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추상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다. 부정관사가 물질명사와 함께 쓰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셀 수 없는 추상명사 또한 부정관사와 함께 쓰이면 보통명사화 된다. (26)예문의 *failure*는 부정관사와 함께 쓰여 보통명사화 된 경우이다. 이 때 그 명사는 행위와 실례를 나타낸다.

(26) I know that my life has not been a failure. (백선주 1982: 26)

부정관사가 *a*가 'a case of'의 뜻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27) a. When you are online, there is a great temptation to use bad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language because you don't know the person you are speaking to.

b. They never had a chance in that river.

c. This picture has a secret.

(최승우 2002: 42)

(27)의 예문에서 부정관사와 함께 쓰인 추상명사 *a temptation, a chance, a secret*은 모두 막연한 무엇을 뜻하지 않는다. 각각 나쁜 언어를 사용하려는 특정한 유혹을, 구체적인 한 기회를, 구체적인 한 비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의미적 특징의 경우로 다음 (28)의 예문은 부정관사 a가 '~의 한 예'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이다.

(28) a. Pablo Picasso, the famous Spanish artist, wanted you to think of this mother as a symbol of mothers everywhere who love and protect their children.

b. Modern shoppers need an education in how-and how not-to buy things at the grocery store.

(최승우 2002 :43)

(28a)의 예문에서도 *a symbol*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어머니에 대한 상징물이지 막연한 의미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28b)의 *an education*도 마찬가지로 식료품을 뜻하기보다는 식료품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사지 않는가에 대한 특정한 교육을 말한다.

관사의 용법을 논할 때 명사의 가산성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핵심사항은 바로 관사가 총칭적(generic)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경우이다. 총칭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부정관사, 정관사, 무관사 모두에게 빠짐없이 나타나는 용법이지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차이점은 분명하다. 총칭적 용법은 의미적 측면으로만 사용된 경우가 아니다. 의미적 접근 뿐만 아니라 통사적, 화용적 접근까지 고려해야 한다.

최은경(2012)은 총칭성이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일반화의 방식으로 그 대상의 전체 집단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한 종류의 전형적인 특성을 표현함으로써 문장이 해석되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전자는 명사구 수준에서, 후자는 문장 수준에서 일어나는 총칭성이다.

최은경(2012)은 부정관사가 단수 명사와 함께 쓰여 집단의 대표로써 한 개체를 지칭하는 총칭성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부정관사 단수명사 형태는 총칭성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구어체적인 형태이며 가장 비격식적인 형태이기도 한다. 또한 사전에서 정의를 내릴 때 흔히 사용된다.

(29) a. A horse is an animal.
b. A soldier carries a gun.
c. An ostrich cannot fly.
d. An opera is a play with music in which most of the words are sung.

(한학성 1996: 106-107)

(29a)의 *a horse,* (29b)의 *a soldier* 그리고 (29c)의 *an ostrich*는 각각 말, 군인, 타조를 일반적으로 총칭하지만 각 종류를 대표하는 것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9d)의 예문은 사전에서 정의를 내릴 때 쓰는 총칭관사 *a*의 예로 오페라의 사전적 의미를 나타낸다.

다. 화용적 접근

부정관사 *a(n)*의 화용적 접근의 용법은 정관사의 화용적 접근의 용법과 성격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르며 그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부정관사가 화용적 접근의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처음으로 제시된 명사 앞에 쓰일 경우이다.

(30) a.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king.
b. I had a letter from an old friend yesterday.
c. We stayed at a hotel in the center of the city.

(문용 1998 :123)

(30)의 예문들에서 부정관사 *a*는 'a certain(어떤...)'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 화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알리려는 의도를 갖으며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나 사물은 이전에 제시된 적이 없어야 한다.

2. 정관사

Jespersen(1933)은 정관사 *the*가 *that*의 약형이라고 정의한다. 더불어 음성적인 측면과 동시에 의미적으로도 함께 약해진 형태가 정관사 *the*이다.

"'The' may be considered a weakened 'that'. A remnant of the 't' is seen in the dialectal form 'the t'other'(originally 'that-other').
As 'the' is phonetically a weaker 'that', its meaning also is weakened : instead of pointing out it serves to designate or single out."

(Jespersen 1933: 161)

*the*는 가산명사는 물론이고 불가산명사와 명사의 단수, 복수에 모두 부과할 수 있고 자음 앞에서는 [ðə], 모음 앞에서는 [ði]로 발음되며 다른 낱말과의 대조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타내기 위해서 강세를 붙일 때는 [ðiː]로 발음한다(김용성 2001).

가. 통사적 접근

정관사의 통사론적 용법 중 하나는 정관사가 한정되는 명사 앞에서 쓰이는 경우이다. 이 때 주로 다음에 나오는 구와 절이 명사와 해당명사가 의미하는 것을 가리킨다.

(31) a. Ours is the house on the corner.
b. I'd like to get hold of the idiot who left this broken glass here.
c. We came to the edge of a lake.

(Eastwood 2005: 198)

(31)예문의 *the house, the idiot, the edge*가 처음 제시된 집, 백치, 가장자리일 경우 부정관사 *a(n)*이 명사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세 개의 명사 앞에 정관사 *the*가 붙을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문장에서 해당 명사들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1a)의 집은 코너에 있는 특정한 집을 말하고, (31b)의 백치는 깨진 유리를 놔두고 간 백치를 가리킨다. (31c)의 가장자리는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특정한 호수의 가장자리를 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용법은 완전히 통사적 접근에 의한 것은 아니며 의미적 접근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32) a. My office is the room on your right.
b. My office is a room on your left.

(문용 1998: 12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2a)에서 *room* 앞에 *the*가 붙어 있는 것은 상대방의 우측에 방이 하나뿐이기 때문이고 *on your right*가 *room*을 한정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문용 1998). 반면에 두 번째 예에서 *a room*으로 부정관사가 쓰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좌측에 여러 방이 있었고 화자가 그 중 하나의 방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33) Q. There are three coats here. Which is yours?

A. Mine is the grey one

(문용 1998: 126)

(33)의 예문에서도 *coat*앞에 *the*가 붙은 것은 *three coats* 가운데 *grey coat*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약 *a grey one* 으로 쓰였다면 *three coats* 중 *grey coat*가 두 개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명사 다음에 나오는 어구가 명사를 한정시킴으로써 명사 앞에 the가 부가된 경우의 정관사의 용법을 '후방조응적(cataphoric)'용법이라고 한다. 또한 정관사는 '*of*+ 명사구'의 수식을 받아 원칙상 무관사로 쓰이는 명사에 정관사 *the*가 붙을 수 있다(문용 1998). (34a)의 *history*는 *of Korea*의 수식을 받아 정관사가 붙는다.

(34) a. the history of Korea cf. Korean history

b. the paper of Canada cf. Canadian paper

c. the literature of America cf. American literature

(문용 1998: 127)

정관사가 형용사의 최상급과 함께 쓰이는 경우도 통사적 접근에 의한 용법으로 구분된다. 정관사는 최상급의 형용사 앞에 사용될 수 있다. 최상급 뿐만 아니라 서수(first, second, third...) 앞에 사용되어 차례를 나타내거나 *first, last, next,*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only, right, same, wrong*가 쓰인 명사구 앞에서도 정관사가 부가될 수 있다.

(35) a. The Sears Tower is the tallest building in the US.

b. Is this the first time you've been to Britain?

c. I think you went the wrong way at the lights.

(Eastwood 2005: 198)

(35a)는 '가장 높은 빌딩'이라는 최상급 형태에서, (35b)는 '처음의 순간'의 최상급에서 정관사가 사용된 경우이다. (35c)는 *wrong*이 쓰인 명사구 앞에서 정관사가 부가된다.

부정관사의 통사적 용법에서 고유명사 앞에는 관사가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한 경우 정관사가 쓰인다는 것을 말했다. 이처럼 고유명사를 관사와 함께 쓰지 않는 것이 통사적 접근의 원칙이지만 정관사가 쓰이는 몇 가지 예외적 상황들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지리적 장소 앞에서는 고유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사가 사용되는데 연방국가명을 포함한 특정한 국가 앞, 호수, 산, 섬, 바다, 해안, 해협, 사막, 평야, 반도, 강 이름 앞의 경우이다.

<표 4>정관사를 사용하는 지명

산맥 이름	the Alps, the Himalayas, the Rocky Mountains, the Andes, the Pyreness
사막 이름	the Sahara, the Gobi Desert
지역 이름	the Midlands, the Middle East, the Punjab, the Crimea
바다 이름	the Pacific, the Atlantic, the Indian Ocean, the Baltic
해협 이름	the English Channel, the Gulf of Mexico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강 이름	the Rhine, the Potomac, the Mississippi
운하 이름	the Suez Canal, the Panama Canal
군도 이름	the British Isles, the Hawaiian Islands

(한학성 1996: 141-142)

둘째, 많은 신문이름들은 축약되거나 축약되지 않거나 정관사 *the* 앞에 쓰인다. (36)의 괄호 안의 단어들은 앞에서 주어진 단어들의 축약형이다.

(36) the Manchester Guardian(the Guardian), the New York Times(the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the Journal), the Washington Post(the Post). (Cowan 2008: 223-224)

셋째, 정치 기구나 정치가 이름 앞에서는 정관사 *the*가 부가된다. (37a)는 정부 기관 앞에서 정관사가 쓰인 경우로 괄호 안의 단어는 축약된 형태이다. (37b)는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직위 앞에서 정관사가 쓰인 경우이다.

(37) a. the Department of Commerce, the Treasury Department,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the FBI),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the CIA)

b.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the Vice President

(Cowan 2008: 223-224)

또한 신체 부분의 이름 앞에는 정관사 *the*, 부정관사 *a(n)*, 그리고 무관사가 모두 쓰인다.

(38) a. He was shot in the arm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He lost an arm in an automobile in an automobile accident.

c. It is a strange kind of lizard that doesn't have legs.

(Cowan 2008: 224)

명사들이 대조적 상황에 놓인 경우에도 그 앞에 정관사가 사용된다.

(39) a. the animal vs. the human

b. the ocean vs. the land

나. 의미적 접근

부정관사 *a(n)*의 총칭적 의미와 마찬가지로 정관사 *the*도 총칭적 의미를 가진다. 정관사 *the*는 단수명사와 함께 쓰여 종류 지시에 의한 일반화를 통한 총칭성을 가진다. 주로 가장 형식적인 언어영역에 쓰이며 학문적인 글이나 전문적인 문헌에 자주 보여진다(최은경 2012).

(40) a.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b. The eagle is the king of birds.

(한학성 1996: 103)

두 번째는 배분적 의미를 나타낼 경우이며 이 때 의미의 해석뿐만 아니라 통사적 규칙도 함께 따라야 한다. 배분적 의미를 나타내는 정관사는 보통 전치사와 함께 쓰이며 전치사 다음이 아닌 경우는 부정관사가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문용 1998). (41)의 예문에서도 정관사가 전치사 *by*와 함께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41) a. Eggs are usually sold by the doze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This rope is sold by the yard or by the meter.

(문용 1998: 131)

또한 부사적인 쓰임 앞에서 정관사는 특정 의미를 갖기도 한다.

(42) a. I love him all the better for his faults.

b. The sooner, the better.

(문용 1998 :132)

(42b)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sooner* 앞의 *the*는 '...한 정도에 따라(=to the extent that...)라는 뜻을, (42a)와 (42b)의 *better* 앞에 사용된 *the*는 '그 정도만큼 더 (=to that extent)'라는 뜻을 갖는다(문용 1998).

정관사가 보통명사와 결합하여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43) a. ...succeed to the crown.

b. ...be destined for the church.

c.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d. All the mother in her awoke.

(문용 1998: 130)

(43)의 예문에서 *crown, church, pen, sword, mother*은 보통명사지만 정관사 *the*와 함께 쓰이면서 추상적 의미를 지닌다. (43a)의 *crown* '왕위'라는 추상적 의미를 , (43b)의 *church*는 '목사'를, (43c)의 *pen*은 '학문'을. (43c)의 *sword*는 '무술'을, 마지막으로 (43d)의 *mother*은 '모성적 감정'을 뜻한다.

이외에도 지역이나 방향을 나타낼 때 정관사를 사용한다. 단순히 동서남북과 좌우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쓰여 동부지역, 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지역과 같은 지역의 의미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

(44) a. Ben noticed the first faint streaks of dawn in the east

b. She's from the South.

(한학성 1996: 161)

(44a)에서 *the east*는 동서남북의 동쪽을 의미하고 (44b)의 *the South*는 지역으로써의 남부지역을 의미한다. 이 때 *the South*에서 *South*를 대문자로 쓴 이유는 해당 단어를 고유명사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45a)의 in the morning과 (45b)의 in the evening처럼 때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정관사를 사용한다.

(45) a. Everyone on the farm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b. Rather came home in the evening with a present for her.

(백선주 1982: 22-23)

다. 화용적 접근

정관사는 가장 분명하게 화용적 접근에 의한 용법을 갖는 관사의 종류이다. 한학성(1996)은 지시 내용의 결정 여부가 해당 명사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해당 명사의 의미 자체에는 차이가 없으나 그 명사에 의해 지시되는 내용이 문맥 또는 기타 사항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지(혹은 확인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린 것이므로 해당 단어의 의미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시 내용만 결정되어 있으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는 해당 명사의 가산성 및 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부정 관사와는 다른 층위의 작용이다.

첫 번째로 제시하는 화용적 용법은 뒤에서 다시 나온 명사가 앞에서 언급된 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이 때 뒤에 다시 나온 '정관사+명사'는 먼저 나온 '부정관사+명사'를 가리킨다.

(46) Here is a glass, some water, three coins. Watch! I put the water into the glass, then drop the coins one by one into the water.

(문용 1998: 125)

(46)예문의 첫 문장에서 *glass, water, coins*는 처음 제시되는 명사들이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의 *the glass, the coins, the water*은 각각 앞에 나온 *a glass, some water, three coins*를 가리킨다. 이런 정관사의 용법을 '전방조응적(anaphoric)' 용법이라고 한다(문용 1998). 이 때 뒤에 나온 명사가 앞에서 부정관사와 함께 나온 명사와 같은 지시대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화용적 접근이 가능하다.

다음은 문맥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가리키는 것이 분명할 때 사용하는 경우이다. 백선주(1982)에 따르면 전체의 문맥과 상황을 통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할 때 *the*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화자와 청자가 말하고 있는 명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로 주로 집안이나 학교 안, 함께 타고 있는 기차 안, 또는 마을이나 나라의 상황에서 쓰인다.

(47) a. There's someone at the door.
Don't you hear the bell?
b. Perhaps it's the milkman.
No, it's the postman.

(문용 1998: 128)

(47a)의 예문에서 *door*과 *bell* 앞에 정관사 *the*가 사용된 이유는 (46)의 예문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처럼 먼저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키거나 명사가 뒤에 나온 어구에 의해 한정되어 있어서가 아니다. A와 B가 대화 속의 어느 *door*와 *bell*을 가리키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47b)의 *milkman* 과 *postman*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A와 B가 *milkman*과 *postman*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관사 *the*가 붙는다. 이와 같은 정관사의 용법을 '외계조응적(exophoric)' 용법이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서 관사의 용법과 관련해서 언급한 전방조응, 후방조응, 외계조응이란 개념은 정관사의 용법 외에도 대명사와 대동사 등 대용형의 용법과 문장 요소의 생략 등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쓰인다(문용 1998).

다음 예문(48)에서 보여주는 용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상 명사가 유명하거나 우월함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경우 사용하는 정관사의 용법이다.

(48) a. Brussel claims to be the business center of Europe.

b. You are the Judge Atkinson, aren't you?

(문용 1998: 128)

(48)예문의 *the business center*와 *the Judge*는 특정화된 명사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이미 인식된 상업중심지 *Brussel*과 판사 *Atkinson*의 유명함 때문에 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장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장소라고 인식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관사의 사용이 가능하다. 공공 건조물이나 은행이나 도서관, 회사, 상점, 공원과 같은 장소가 정관사 *the*와 함께 쓰인다.

(49) a. Many students go to the library in the afternoon and read until evening.

b. Let's go to the store together.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The buses began the long trip to the park.

(백선주 1982: 23)

마지막으로 정관사는 오직 하나뿐인 명사 앞에서 쓰인다. (50)의 해, 달, 지구와 같은 단어들은 누구나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관사를 사용하므로 화용적 접근의 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50) the sun, the moon, the earth, the sea, the world, the sky
the Lord, the Pope, the Devil, the Bible (문용 1998: 130)

3. 무관사

가. 통사적 접근

통사적 접근에 의한 무관사의 용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전제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앞에서 관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로 정관사와 부정관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추상명사와 고유명사는 관사가 생략된다. 다음에 나오는 (51)과 (52)의 예문은 각각 물질명사와 추상명사 앞에서 관사가 생략된 경우이다.

(51) a. He drew two magic arrows, one gold and one silver.
b. One small boy threw waste paper and bottles on the grass.

(백선주 1982: 27)

(52) a. Which is happier, life with a car or life without a car?
b. True happiness lies in love, friendship, and peac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백선주 1982: 27)

고유명사 앞에서 관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매우 일반적이며 그 분류의 범위 또한 넓다. 대표적으로는 인명, 산이나 섬, 공원명, 지명이나 국명 앞에서 관사가 생략된다.

<표 5>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지명

대륙 이름	Asia, America, Europe, Africa
국가 이름	Korea, Japan, China, Britain, France
주 이름	California, Texas, Iowa, Oklahoma
도시 이름	Seoul, London, Washington, Boston
개별 산 이름	Mount Everest, Mont Blanc, Mount Fuji
호수 이름	Lake Michigan, Lake Nicaragua, Lake Victoria
개별 섬 이름	Borneo, Sicily, Bermuda, Easter Island
만 이름	San Francisco Bay, Hudson Bay

(한학성 1996: 139-141)

또한 명사 앞에 *this, that, my, your, his, which, what* 과 같은 한정사가 오는 경우 한정사 앞에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백선주 1982).

(53) a. His father is a doctor

b. This is my friend.

(백선주 1982: 3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백선주(1982)는 *as*나 *of* 다음에 오는 명사의 경우에도 명사 앞에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54) a. He rose to the post of Minister of Justice.

b. You entered the doors of this school as new students.

(백선주 1982: 33-34)

(54a)에서 *Minister*과 *Justice*는 *of* 다음에 오는 명사들이기 때문에 관사를 생략하고 (54b)의 예문에서는 '~로서'라는 의미의 *as* 다음에 *new students*가 나왔으므로 *new students* 앞에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문(55)의 경우와 같이 문장의 5형식과 그 수동형에서 목적보어에 해당하는 명사구에는 관사를 부가하지 않는다(문용1998).

(55) a. They crowned the Queen of England.

b. Who was appointed captain of the team.

(문용 1998: 136)

대개 형용사의 최상급에 정관사 *the*를 붙이지만 부사의 최상급에는 관사가 생략된다.

(56) a. Which season do you like best?

b. Which food do you like best?

(백선주 1982: 33)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을 나타내는 명사를 사용할 때 주로 명사 앞에 전치사 *by*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치사 *by* 뒤에 따라오는 명사 앞의 관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생략된다.

(57) a. They went by plane, but we prefer to travel by train.

b. You can contact him by phone

c. I'll send it by express mail.

d. You can always get in touch with me by e-mail.

(Cowan 2008: 217)

하지만 같은 명사들이라 하더라도 *by* 이외의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거나 주어 혹은 목적어로 사용될 때는 상황에 적절한 관사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한학성 1996). 다음 (58a), (58b)는 교통수단이 목적어로 사용되고, (58c)는 교통수단이 *by* 이외의 전치사와 쓰여 관사가 필요하다. (58d),(58e)는 통신수단에 *by* 이외의 전치사가 사용되어 관사가 사용된 경우이다.

(58) a. take the bicycle

b. catch the plane

c. be on the bus

d. on the radio

e. in the mail

(한학성 1996: 149)

동일한 형태나 동일한 의미적 관계를 가진 가산명사들이 전치사나 접속사에 의해 수평적 구조를 가질 때 주로 관사는 생략된다. (59a)는 전치사 *to*에 의하여 *place*가 수평적 구조를 가진 경우이고 (59b)는 접속사 *and*에 의해 *father*과 *son*이 수평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9) a. They went from place to place.

b. It's an agreement between father and son.

(Cowan 2008: 218)

하루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가 *at*이나 *by*와 함께 쓰이는 경우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문용 1998). (60a)는 *dawn*은 *at*과 함께 쓰여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60b) 역시 *night*과 *day* 앞의 전치사 by 때문에 관사가 생략된다.

(60) a. I left there at dawn.

b. They hunt by night and sleep by day.

(문용 1998: 135-136)

등위 접속 구문에서 두 번째 명사나 명사구의 경우 함께 사용된 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때 명사들은 주로 *and*나 *or*에 의해 접속된다.

(61) a. Storms affected the north and (the) west of the country.

b. a knife and fork

c. I can see a man and woman.

(한학성 1996: 172)

(62)의 단어들에서 볼 수 있듯이 병명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63)의 *flu*와 *measles*처럼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특정 병명 앞에는 흔히 정관사가 붙는다.

(62) anemia ,dysentery, smallpox, cancer, cholera, retinitis, rabies

(63) (the) flu, (the) measles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이는 *cold*(감기)와 같은 병명은 부정관사가 붙지만 생략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병명을 셀 수 있는 명사로 간주한다.

(64) a. I caught (a) cold. (문용 1998 :133)

b. I have (a) fever.

나라의 언어이름 앞에서 관사는 생략된다.

(65) English, Japanese. Korean

Morning, evening, day, night 등 하루 중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at, by. after, before*과 같은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하지만 전치사 없이 쓰이거나 *in, during*과 같은 전치사와 쓰일 때는 정관사가 사용된다(한학성 1996). 다음의 (66)예문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전치사 *at, by, after, before*과 함께 쓰여 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고 괄호 안의 참고예문들은 전치사가 없거나 전치사 *in, during*과 함께 쓰여 정관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이다.

(66) a. at dawn (cf. watch the dawn)

b. at sunrise (cf. The sunrise was splendid.)

c. at night (cf. wake up in the night)

d. before morning came (cf. in/during the morning)

e. Evening approached. (cf. in the evening)

f. after nightfall (cf. all through the night)

(한학성 1996: 15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계절, 달, 요일, 공휴일 등의 때를 나타내는 명칭은 고유명사의 범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통 관사를 생략한다(백선주 1982).

(67) a. The company was formed in 1981.
b. The elections are in March.
c.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d. It was a Christmas I'll never forget.
e. I must finish this report by Monday.
(Eastwood 2005: 208)

(67a)는 연도, (67b)는 달, (67c)는 계절, (67d)는 특별한 공휴일, (67e)는 요일을 나타내는데 이때 명사 앞에 관사는 생략된다. 또한 도로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 중에 *Street*는 보통 *the*를 붙이지 않는다(백선주 1982).

(68) He came out of the British Museum and went to Oxford Street.
(백선주 1982: 32)

나. 의미적 접근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될 때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69) a. Don't worry, father.
b. Waiter, may I have another glass of water, please?
(문용 1998: 135)

호칭 중에서도 사람 이름 앞에 어떤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 직업, 칭호 혹은 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70) a. King Sejong
b. Professor Douglas
c. Dr. Johnson

‘동사+목적어’가 숙어처럼 사용된 경우에도 관사는 생략된다(문용 1998).

(71) beg pardon, declare war, take care of, make room for, take part in
(문용 1998: 138)

School, Church, bed, table 등의 보통 명사가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표시할 경우는 관사를 생략한다(백선주 1982).

(72) a. Some children do not go to school by bus.
b. On Sundays some people go to church.
c. Aunt Polly was very small and weak.
(백선주 1982: 29)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형용사가 고유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백선주 1982).

(73) Poor Tom has to work hard. (백선주 1982: 29)

*few, little*처럼 '조금밖에 없는'의 의미로 부정의 표현을 나타낼 경우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백선주 198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74) I have few apples.

어떤 명사가 *last*나 *next*의 수식을 받아 때를 표시하는 경우에 관사는 생략된다(백선주 1982). (75a)에서 *year*이 *last*의 수식을 받아 '지난 해'를 나타내고 (75b)의 *next Saturday*는 '다음 주 토요일'을 의미하며 때를 표시하기 때문에 관사를 생략할 수 있다.

(75) a. These flats were built last year.
b. We're having a party next Saturday.

(Eastwood 2005: 209)

다. 화용적 접근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지 않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식사명의 경우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백선주 1982). 이처럼 관습에 해당되는 식사명인 경우로서 화용적 접근의 용법을 갖는다. (76a)의 *breakfast*는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 일곱시에 먹는 아침식사를 가리키며 (76b)의 *dinner*은 *father*이 만든 관습에 해당되는 식사명이기 때문에 관사를 생략한다.

(76) a. He eats breakfast at seven.
b. Father makes it a rule to invite several friends of his to dinner on his birthday.

(백선주 1982: 31)

문용(1998)은 광고문과 게시문, 전문, 신문, 잡지의 *headline* 등에서 관사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생략된다고 말한다. 읽는 사람들이 그 문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문장길이를 줄인다.

(77) a. FIRE DESTROYS DOWNTOWN OFFICE BUILDING

b. A fire destroyed a downtown office building.

c. Slippery When Wet!

d. he read surface is slippery when it is wet.

(Cowan 2008: 218)

(77a)와 (77c)는 관사가 생략된 게시문이며 (77b)와 (77d)는 각각 (77a)와 (77c)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본래의 문장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사교육에 대한 국내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깨닫고 관사의 용법을 제시한다. 영어 관사는 영어 텍스트 속에서 쓰이는 빈도수가 크며 영어텍스트의 의미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영어의 관사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습자에게 쉽게 학습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에는 영어의 관사에 상응하는 관사체계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관사습득을 어렵게 만든다. 서론에서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습자들이 관사체계를 배울 때 많은 오류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관사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본론에서는 대표적인 문법학자인 Jespersen과 Quirk et al.이 분류한 관사의 종류와 용법을 알아본다. 그리고 영어 관사의 용법을 통사적 접근, 의미적 접근 그리고 화용적 접근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이 때 정관사, 부정관사 그리고 무관사를 구분시키면서 적용되는 중요한 세 가지의 핵심사항을 용법들과 함께 제시한다. 첫 번째 핵심사항은 명사의 가산성과 관사의 관계이다. 부정관사 *a(n)*과 정관사 *the*는 단수 가산 명사 앞에 쓰인다. 복수 가산 명사 앞에는 부정관사 *a(n)*은 쓰일 수 없고 무관사와 정관사 *the*만이 부가된다. 또한 무관사와 정관사 *the*는 불가산 명사 앞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관용적인 용법이나 특정한 경우로 예외적인 명사와 관사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그에 대한 추가적 연구도 필요하다. 두 번째 핵심사항은 지시 내용에 따른 정관사 *the*의 사용이다. 한학성(1996)은 명사의 가산성과 관사의 관계와는 다른 층위의 작용으로 명사에 의해 지시되는 내용이 문맥이나 다른 사항에 의해 결정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정관사의 사용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는 총칭적 용법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쓰였느냐가 중요하다. 부정관사, 정관사 그리고 무관사는 모두 대상의 총칭성을 나타낼 때 쓰일 수 있는데 각각의 총칭성은 의미적으로, 사용되는 영역에 따라 차이점을 지닌다.

국내 영어교육 현장에서 관사 교육은 분명 지금보다 더 개선되어야 한다. 관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사지도를 소홀히 하는 영어 교육의 현실은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관사를 사용할 때 느낄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사 용법을 통사적 접근, 의미적 접근 그리고 화용적 접근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관사교육에 관심 있는 교육자와 학습자들의 효율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하지만 관사 용법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구체적인 관사 사용 오류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오류수집의 결과에 맞춘 효과적인 영어 관사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강행구. (2001).『영어관사의 체계와 습득의 실제』. 서울: 경진문화사.

김경자. (2010). 교과서에 나타난 영어 관사의 용법 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김기완. (2003). 영어 관사 사용의 오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김용성. (2001). 『영문법』. 인천: 우용출판사.

김창호. (1994). 『영문법』. 서울 : 한신문화사.

문용. (1998). 『영어품사론』. 서울: 한국문화사.

백선주. (1982). 관사 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설행남. (2003). 영어 관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미영. (1981). 영어 명사의 가산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안수정. (2013). 명사의 전성과 관사의 사용에 대한 인지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성식. (1971). 『고등영문법』.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주세정. (2006). 중학생의 영어 관사 오류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최승우. (2002). 영어 관사의 효율적 지도방안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은경. (2012).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영어 총칭 관사 및 명사구 습득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학성. (1996). 『영어 관사의 문법』. 서울 : 태학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wan, R. (2008).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astwood, John. (2005). Oxford Learner's Gramm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Jespersen, O. (1933). *The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rge Allen & Unwin Ltd.

_____.(1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Ⅶ: Syntax*. London: Allen & Unwin Ltd.

_____.(1965).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Ⅶ: Syntax*.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Marianne Celce-Murcia & Diane Larsen-Freeman. (1999). *The Grammar Book.* Boston: Heinle & Heinle.

Nesfield, John. (1898). *English Grammar : Past and Present.* London: Macmillan and Co.,Ltd.

Quirk et al.(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New York: Longman.